

언제나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먼 곳을 다녀 오는 일에는 익숙하던 저명한 범죄학전문가 최율교수는 뜻밖에도 바로 이웃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해결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놀란다. 전화를 건 사람은 최율교수가 사는 신도시 경찰서의 차장상경감이었다.

“피해자는 누군가요?” 최교수가 물었다.

“남태수씨입니다.” 차경감은 말했다.

남태수씨는 수백억원의 재력가였다. 최교수는 그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 고장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호화별장 ‘한양장’은 알고 있다. 최율교수는 차경감에게 ‘한양장’ 서재에서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뒤 ‘한양장’의 서재로 들어섰을 때 검시관은 막 검시를 끝내던 참이었다. 남태수씨의 시체는 프랑스 도어(전면이 유리로 된 두쪽문) 바로 앞 바닥에 놓여 있었다. 이 문을 나서면 작은 테라스가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이때 시계는 저녁 9시 2~3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남태수씨는 앞이마 가운데를 막바로 쏜 단 한방의 총알로 살해되었습니다.” 검시관은 말했다.

“총알은 2발이 발사되었습니다.” 차경감은 이어서 설명했다. “이 총알들은 문짝의 유리패널 꼭대기부분을 부셨습니다. 두번째 탄환은 문 반대쪽 벽속에 박혀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검시관이 떠난 뒤 차경감과 최교수만 남았다. 최교수가 잔디를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데 차경감이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더 설명하기 시작했다.

“살인사건이 일어 날 때 남태수씨는 이방에서 개인비서인 김영자씨에게 편지를 받아 쓰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양장에는 남태수씨와 부인 장미령씨의 저녁초대를 받은 6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여비서 김영자씨에 따르면 남태수씨는 받아쓰기를 마친 뒤 유리문 앞에 서 있었는데

밖에서 2발의 총알이 발사되어 즉사했다는 겁니다.”

차경감은 문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키가 훗칠하게 컸다. 그래서 그의 머리는 문짝 위쪽 가로대에 살짝 닿을 정도였다. 차경감은 “저 울타리밑에서 38구경 권총을 발견했습니다”고 말하면서 테라스 가장자리를 가리켰다.

“문제는 혐의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혐의자가 있어도 누가 그를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차경감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남태수씨가 그날저녁 계획한 만찬은 정상적인 사교모임은 아니었다. 참석초대객

은 모두가 남태수씨가 죽기를 바라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되었다.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나 남태수씨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수모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남태수씨는 자기가 크건작건 피해를 준 바

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짓을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고 차경감은 설명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 초대하는 만찬에 참석한다는 것도 이상한데요?” 최교수가 물었다.

“아마 남태수씨가 너무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나 봅니다.” 차경감이 말했다.

“차경감 말이 맞는 것 같소.” 최교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시체쪽으로 눈을 돌렸다. 죽은 남태수씨는 보통사람보다 키가 작고 유별나게 땅딸막한 체구를 갖고 있었다. 최교수는 남태수씨가 키에 비해 체중이 15kg은 더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의 악명 높은 평판에 비하면 풍채는 당당하지 못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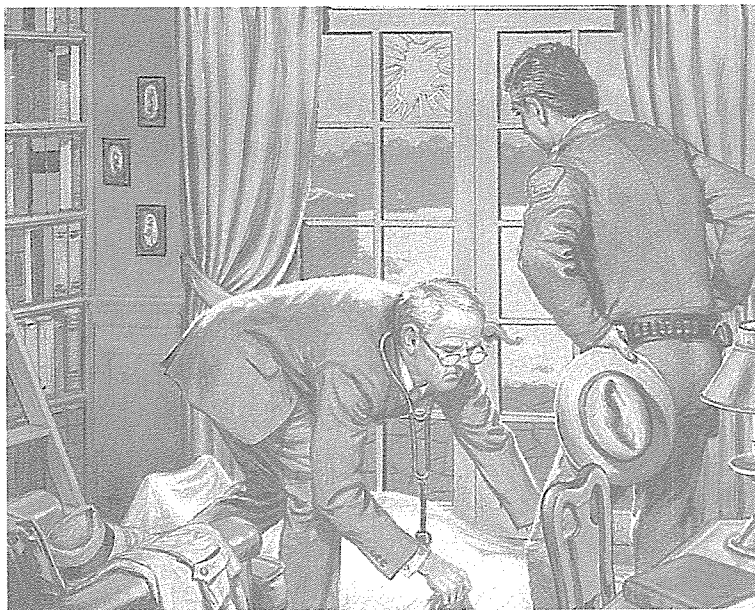
최교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차경감은 모두가 기다리는 응접실로 가보자고 했다. 그곳에는 미망인 장미령씨와 여비서 김영자씨도 있었다. 차경감은 최교수에게 이

함께 푸는 미스터리(7)

서재의 살인사건

들 모두를 일일이 소개한 뒤 이들에게 그자리에 남아 있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서재로 돌아와서 피의자들이 혹시 갖고 있었을 지 모를 살인의 동기를 캐기 시작했다.

우선 박덕봉씨 부부부터 도마위에 올랐다. 부동산개발업자인 박씨부부는 남태수씨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나 별안간 자금을 거둬가는 바람에 파산하고 말았다. 남태수씨는 몇 푼 안주고 이들의 사업을 사들인 뒤 되팔아서 큰 이익을 남겼다.



다음 양천수부자의 경우는 의류업으로 성공했으나 남태수씨에게 강압적으로 사업을 빼앗겼다. 나머지 두 사람의 초대객은 한심장씨와 구자숙씨다. 한심장씨는 남태수씨의 사업체에서 최고경영인으로 일하다가 아무 설명도 없이 별안간 해고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 또 구자숙씨의 남편 공정대씨는 호텔체인을 경영했으나 이 체인의 지배인을 매수한 남태수씨에게 회사를 쫓겨나 신경쇠약에 걸려 있다.

이들의 토의는 미망인 장미령씨가 뚜드리는 노크소리로 중단되었다. 장미령씨는 밤늦게 불러온 유리장과와 함께 서재로 들어왔다. 유리장은 총격으로 부서진 유리창을 수리했다.

장미령씨가 응접실로 돌아간 뒤 최교수는 씩씩하게 한

마디 내뱉었다. “남편의 죽음보다도 깨진 유리창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군!”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덕분에 그녀는 혐의자의 굴레를 쓰게 되었거든요.” 차경감은 한마디 거들었다.

“그럼 이들은 모두 이런저런 동기때문에 혐의자가 될 수 있다고 치고 이번에는 살인의 기회를 살펴 봅시다. 남태수씨가 총을 맞을 때 각자는 어디에 있었던가요?” 최교수는 물었다.

“그런데 그게 묘합니다. 그 시간에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단이건 식당이건 또는 바깥이건 게임룸이건 모두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방의 총성을 들었을 때 모두가 한결같이 서재로 달려갔다는 주장입니다. 바꿔 말해서 이들중에서 누구든지 문을 통해 총을 쏜 뒤 총을 버리고 서재 안으로 뛰어 들어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비서는 테라스밖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최교수가 물었다.

차경감은 머리를 내저으면서 말을 계속했다. “김영자씨는 두방의 총소리가 나고 남태수씨가 쓰러지는 등 너무나 급작스레 일

이 벌어지는 통에 까만 모습이 슬쩍 스치는 것을 본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자 프랑스 도어를 열고 밖으로 달려 나갔으나 누군가가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것만 볼 수 있었는데 그가 여성같기는 했으나 확실히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되돌아 왔는데 이때 7명의 다른 사람들도 헐레벌떡하면서 서재로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교수는 한참동안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방속의 어떤 한곳을 뚫어지게 쳐다 보고 있었다. 한참 뒤 그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누가 남태수씨를 살해했는지 알겠소?”

살인범은 과연 누구일까?

〈春堂人〉

해답은 〈98〉쪽에